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찾은 느헤미야

기도

찬송 주의 진리 위해

말씀 느헤미야 1:1-5

느 1:1-5 1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마중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1차적인 부르심인 '구원'에로의 부르심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처럼, 2차적인 부르심인 '사명'에로의 부르심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염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하나요?" 공자는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공자의 또 다른 제자 자로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들으면 즉시 실천해야 하나요?" 공자는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 어찌 들은 것을 즉시 실천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줄곧 지켜본 자화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찌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염구는 머뭇거리기는 성격이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것이다. 자로는 지나치게 용감하므로 제지한 것이다."

현명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할 때 각 학생의 성향과 기질을 무시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 가운데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골프나 야구 선수들이 제각각 다른 스윙 폼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듯이, 부르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을 붙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느헤미야 1장에는 부르심의 일반적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1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1:1절, 시간적인 현주소의 인식)

.....

2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1:1절, 공간적 현주소의 인식)

.....

3 느헤미야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1:2-3절, 정보의 탐색)

.....

4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부담)

.....

.....

5 느헤미야의 직업과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11절, 자신의 경험과 경력)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1:11절)

.....

6 이 모든 배경을 근거로 해서 느헤미야가 발견한 자신의 소명(역할)은 무엇입니까?

.....

.....

함께하는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을 발견했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